

# 서울북부지방법원

## 판 결

사 건 2016고정91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 
피 고 인 A  
검 사 ○○○(기소), ○○○(공판)  
판 결 선 고 2016. 8. 12.

## 주 문

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.

## 이 유

### 범 죄 사 실

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.

피고인은 서울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-○○의 소유자로, 서울 ○○구 ○○○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,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으로, 2014. 8. 22.경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4. 10. 10.을 수용의 개시일로 한다는 수용재결서를 통보 받았음에도, 위 피고인 소유의 서울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-○○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○○○재정비촉진구

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.

## 증거의 요지

###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#### 1. ○○○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

#### 1. 고발장

#### 1. 재결서 정본 송부 공문, 재결서, 보상금 내역서

## 법령의 적용

### 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(2015. 1. 6. 법률 제12972호  
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7조 제4호, 제43조

### 1. 선고유예할 형

벌금 50만 원

### 1. 노역장유치

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(1일 10만 원)

### 1. 선고유예

형법 제59조 제1항(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 
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,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조합과 원만히  
합의하여 위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, 피고인이 현재  
공소사실 기재 토지를 위 조합 측에 이미 인도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, 피고인  
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)

판사 박진영 \_\_\_\_\_